

奎章閣과 그 藏書의 變遷

白

麟

目 次

- | | |
|--------------|------------------|
| 一. 緒 言 | 五. 高宗以後의 奎章閣의 動向 |
| 二. 奎章閣設立의 緣由 | 六. 奎章閣圖書의 變遷 |
| 三. 奎章閣의 組織 | 七. 結 言 |
| 四. 藏 書 | |

一. 緒 言

李朝 第22代王 正祖(1776~1800)의 奎章閣 經營은 實로 韓國의 近世圖書館史上 重要한 意義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李朝前期의 文化的 中心이 集賢殿이 었다면 李朝後期의 文化的 中心은 奎章閣이라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世宗2年에 設置된 集賢殿의 任務와 機能은 世宗9年에 이르러 弘文館에서 이를 繼承하였고 正祖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奎章閣에 繼承되었다. 이와 같이 集賢殿에서 弘文館으로 그것이 다시 奎章閣으로 繼承되는 동안에 學問은 發達되고 새로운 文化가 創造되면서 李朝의 文化를 形成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같은 文化機構는 文獻와 記錄을 永久히 保存함으로써 國家와 民族의 繁榮을 위한 資料로 삼으려고 한 制度가 곧 集賢殿, 弘文館, 奎章閣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李朝時代의 圖書館史를 扼要에 있어서 그 順序가 바뀌어진 것이나 本稿는 拙者의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를 抄略한

것으로서 同 論文에서 誤字가 많았던 것을 校正하는 한편 미처 認識치 못한 것들을 補充하면서 奎章閣의 概略의인 沿革을 紹介하는 바이니 先輩諸兄의 理解있는 評 달을 바란다.

二. 奎章閣 設立의 緣由

奎章이란 말은 天子의 御筆 宸翰을 뜻하는 것으로 中國에 있어서 奎章閣의 처음으로 設置된 것은 元나라 때이다. 即 蒙古의 文宗은 天歷2年(1329)에 中國의인 敎養을 修得하기 위하여 大都 北京에 奎章閣을 設置하고 學問의 所로 하였는 것이 그 始初인 것이다. 文宗은 在位5年間에 特別한 行사가 없는限 항상 이 奎章閣(奎章閣學士院이라고도 함)에서 經書를 講讀하고 書畫를 鑑賞하였다. 한편 經書大典의 編纂 및 中國書籍의 蒙古語翻譯事業도 여기서 行하였으며 蒙古의 貴族子弟의 敎育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특히 文宗이 高麗 忠惠王에게 國印을 授與하는 儀式도 이 奎章閣에서 舉行되었다. 이 奎章閣은 다음 王인 順帝時代에 文宣閣이라 改稱되어 存續되어 오다가 그 후 얼마마

니하여 廢止되고 말았다.

奎章閣의 設置問題가 우리나라에서 最初에 論議된것은 李朝 第7代王 世祖9년에 同知中樞府事 梁誠之의 建言에 비롯한 것이다. 그는

……乞令臣等勘進御製詩文. 奉安于麟趾堂東別室. 名曰奎章閣. 又諸書所藏內閣. 名曰秘書閣. 皆置大提學提學直閣應教等官. 堂上以他官帶之 卽廳以藝文祿官兼差 俾掌出納

이라 하여 奎章閣과 秘書閣의 設置를 建議하였든 것이나 世祖는

若立崇文館 則後世人主或有好製詩文. 專事述作者. 不可從也. 以藏書閣爲弘文館 則可其設 兼官大提學一 提學一 直提學一 直館一 博士一 著作郎一 正字二. (註2)

라하여 奎章閣(崇文館)의 設置는 不許하고 弘文館(秘書閣)의 設置만을 許可하였든 것이다.

그후 第19代王 肅宗20年(1694)에 이르러 비로서 梁誠之의 建議한 奎章閣設置의 問題가 그 實現을 보게된 셈인데 卽 그는 宗簿寺(淸源譜牒을 撰錄하며 宗室의 愆違를 糾察하는 任務를 맡은 官衙)에 小閣을 別建하고 歷代王의 御製 御筆을 奉安하고 肅宗의 親筆로서 「奎章閣」이란 扁額 써서 걸었다. 그러나 그 規模는 적었고 職制도 없이 그 管理에 關한 事務는 宗簿寺에 屬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御製 御筆을 모셔둔 一閣의 祠堂에 지나지 못한 것이었다.

李朝第22代王 正祖(1776~1800)는 그 即位年 9월에 宋朝의 龍圖閣의 制度에 따라 昌德宮 北苑(秘苑)에 奎章閣을 建立하고 歷代王의 御製 御筆의 奉安과 함께 王

室諸書を 收集儲藏하고 6名の 閣臣을 두어 이를 管理케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奎章閣이다.

正祖는 英祖의 世孫으로서 歷代王들 중에서도 보기드문 聖君이 었다. 그는 어려서 부터 學問을 즐겼 하였으며 藏書家로서 東宮時부터 藏書蒐集에 熱中하여 中國藏書家의 遺藏을 深問하여 購入하는데 더욱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慶熙宮(現서울中高等學校터) 尊賢閣에 많은 書籍을 儲藏하고 이를 貞嶺堂이라 하여 自己의 書齋로 하였다. 이와 같은 正祖의 藏書蒐集家로서의 素癖은 그로 하여금 奎章閣을 設立케 한 하나의 重要한 동기가 될것이다.

그리고 그는 奎章閣 設置日의에서 「當時選才學之臣 責一代文明之治」라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正祖의 治道의 理念은 從來와 같이 儒教思想이 었으나 그는 한겨름 더 나가서 國內의 俊才를 뽑아 學問을 研究케 하여 그 理論을 政治에 反影시킴으로서 새로운 政治風土를 造成하기 위한 機構로서 設置한 것이 또한 奎章閣이라 하겠다.

그리고 正祖 東宮時 事情을 살펴 보건데 그는 극히 不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오래도록 계속되어온 老少論의 黨爭과 外戚의 발호는 政治를 어지럽혀왔던 것이다. 거기에 英祖38年의 宣仁門事變은 正祖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이다.

이제 正祖가 登極하기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 祖父인 英祖는 正妃 貞聖王后 徐氏와 繼妃 貞純王后 金氏께서는 不幸하게도 嗣子를 보지못하였고 後宮인 靖嬪李氏의 所生인 孝章世子(追贈眞宗)는 英祖4년에 昌慶宮內 進修堂에서 昇遐하였고, 後

宮 映嬪李氏 所生인 莊祖(追贈)가 英祖11년에 誕生하여 英祖 12년에 王世子로 冊封되어 15歲時부터는 王을 代理하였다.

그러나 그는 宮中の 謀略으로 父王의 美움을 받아오다가 英祖38年 閏5月20일에 두주축에 넣어 無慘한 죽음을 당하였다.

正祖는 英祖28年(1752)에 誕生하였다. 그러니까 父親인 思悼世子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는 10歲의 少年이었다. 그러나 父親의 죽임의 情景를 目擊하였으니 당시의 事情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正祖는 英祖52年(1776)에 即位하였다. 그는 父親思悼世子の 謚號를 追贈하여 「莊獻」世子라 하고 墓는 永祐園, 廟는 景慕宮이라 하였다. 그리고 思悼世子를 謀略하든 徒輩들을 漸次로 肅清하기 始作하여 主謀者였던 文昭儀(英祖의 後宮) 洪麟漢(洪鳳漢의 아우) 鄭厚謙 등을 賜死하고, 和緩翁主(英祖의 第9女)는 江華로 귀양을 보내고 宣仁門의 變(思悼世子가 變을 당한 곳)의 魁首인 洪鳳漢만큼은 正祖의 外祖父이었으므로 罪를 줄 수가 없어 公職에서만 물러나게 하였다.

正祖는 10歲에 죽은 孝章世子를 追尊하여 王을 만들고 眞宗의 謚號를 주면서 自己의 父親인 思悼世子를 追尊하여 王을 만들지 못한것은 英祖의 思悼世子를 追尊치 말라는 遺敎가 있는 까닭이다. 王家의 法上 先王의 遺訓은 엄격히 遵守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表面上으로 先王의 遺訓을 遵守하여야 했기때문에 于先 英祖가 昇遐한 뒤에 先王의 御製 御筆 卷帙 浩翰을 奉安할 새로운 閣의 設立을 構想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先王의 編次人 具允明 蔡濟恭 등으로 하여금 史局을 열게 하고 先王의 御製를 鉞梓(板木에 새기는

것)케 하고 御墨을 刻石하였으며 御制로서 中外에 散在하여 아직 鉞梓치 못한것은 二本을 謄寫시켜서 하나는 陵寢(陵墓)에, 다른 하나는 大內의 別殿에다 각각 奉藏하고 처음 이를 御製閣이라 하였다.

그후 얼마 아니하여 正祖는 即位를 前後한 政局의 混亂을 收拾함과 同時에 앞서부터 構想하여 오던 政治의 革新과 學問의 發展을 위한 큰 事業으로서 第一 먼저 着手한 것이 奎章閣의 設立이라 하겠다.

奎章閣의 本閣인 宙舍樓는 正祖即位年 9월에 竣工되었다. 本閣의 南쪽 門설주엔 지금도 「宙舍樓」라는 扁額이 걸려있다.

奎章閣의 職制를 宋朝의 龍圖閣學士의 制에 따라서 定한 것은 即位年 9月이다. 閣臣의 職階는 提學 直提學 直閣 待敎로 하고 提學에는 黃景源과 李福源을, 直提學으로는 洪國榮과 俞彥鎬를 각각 任命하였다. 이로서 奎章閣은 規模와 職制를 가진 하나의 獨立한 機構로서 發足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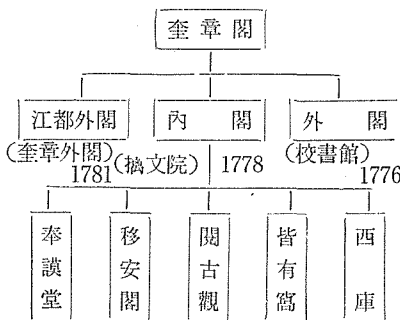
三. 奎章閣의 組織

奎章閣은 內閣과 外閣의 制로 構成되어 있었는데, 內閣에는 摛文院, 奉議堂 移安閣(一名 書香閣) 閣古觀, 皆有窩 西庫 등의 附屬 施設이 있었고, 摛文院을 除外한 이들 建物은 모다 秘苑內의 宙舍樓(本閣)를 中心으로하여 모여있었다. 그리고 外閣으로는 校書館과 江都外閣이 있었는데 奎章閣의 組織을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摛文院

摛文院은 奎章閣의 事務廳舍로서 昌德宮 金虎門內 舊都總府의 廳舍이었다. 여기서는 주로 御眞 御製 御筆 璿源譜牒의

奎章閣組織圖表



撰錄 奉安에 관한 事項, 日省錄 및 內閣 日曆의 編纂, 書籍의 收集 整理 및 圖書의 出納에 관한 事務를 取扱하였으며, 閣臣들이 豹直(長期宿直)을 하였으며 「奎章閣學之署」이었다. 그러므로 摺文院은 奎章閣을 代表하는 本院이라 하겠다.

廳舍의 前楹에는 永樂鍾을 달아놓아 時間과 有事를 알리게 하였으며, 投壺와 琴瑟을 下賜하여 閣臣의 피로를 덜게 하였다. 그리고 廳樑에는 6개의 玉燈을 달아 밤에도 휘황하게 장식하였고 뜰앞에는 測兩器를 設置하였다. 이와같이 閣臣들이 讀書와 研究에 專念하며 不便없이 職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設備되어 있었다.

奉謨堂

奉謨堂은 宙舍樓의 西南쪽에 位置하였으며, 여기에는 列朝의 御製, 御筆, 願命遺詔, 密教 璿源譜牒 등을 奉安했었다. 本來 이 奉謨堂은 英祖의 御製 御筆을 奉安할 目的으로 建立한 것인바 正祖9년에 珍藏閣에 奉安하였던 것을 이리로 移安하였고 그후 이것이 협소하매 哲宗7년에 昌德宮 景秋內에 移建하여 現在까지 奉安되어 오고 있는바 總件數는 6463件이다.

移安閣

移安閣은 本來 書香閣이라 하였는데 여기는 御眞 御製 御筆 등을 옮겨다 曝曬하던 곳이었으므로 移安閣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建物은 宙舍樓의 西쪽에 位置하며 廣이 六間으로 左右에 房이 있다. 후에 와서는 여기에도 國朝寶鑑, 璿源譜略, 御製集 등을 奉藏하였는바 書香閣奉安總日에 의하면 그 總數는 6件 3楹 外에 御製集 163種 1705冊이다.

皆有窩 및 閣古觀

閣古觀과 皆有窩는 奎章閣의 藏書庫로서 여기에는 中國本을 藏置했었다. 閣古觀은 上下二層으로 되어있고 皆有窩는 單層으로 軒一間과 煖房二間으로서 ㄴ字形의 同一 建物이었다.

이 建物은 六·二五動亂時에 燒火되었으며 거기에 收藏되었던 圖書는 現奎章閣圖書 中國本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바 正祖8年 徐浩修에 의하여 編纂된 「奎章總目 皆有窩書 四卷 三冊」에의 하면 總 19652冊이다.

西庫

西庫는 本閣의 西北便에 있었음으로 이를 西序라고도 불렀다. 여기에는 主로 朝鮮本을 收藏하였던 것이므로 우리에게 큰 關心을 갖게 하나 不幸히도 「奎章閣總目」의 一部인 西序書目二冊이 逸失되어 그當時의 藏書內容을 알 수 없음이 遺憾이다. 그러나 高宗年間에 만들어진 것으로 推測되는 「西庫藏書錄 一冊」이 現存하는바 이에 의하면 藏書 總 1,367部 20663冊이다.

外閣(校書館)

校書館은 一名 藝閣이라하여 高麗以來 書籍의 印刷頒布와 香祝 印篆 등에 關한

일을 맡아 보던 官衙로서 奎章閣이 設置됨에 따라 正祖元年(1776) 12월이 奎章閣의 屬司로 된 것이다.

江都外閣

正祖5年(1781) 3月 當時의 江華留守인 徐浩修에게 命하여 江都行宮의 長寧殿 西便에 있었던 燕超軒을 撤去하고 그 자리에 外奎章閣을 建立케 하였는바 다음해 2月 竣工되었다. 그리하여 行宮의 別庫에 秘藏되었던 書籍을 移藏하는 한편 本閣의 西庫 및 奉議堂으로부터 重複되는 書籍을 골라 移置하였다. 그後에도 書籍이 刊行될 때 마다 내리다 두었고 檢書官을 派遣하여 隨時로 曝曬點檢케 하였으니 그 報告書가 外奎章閣形正案이다.

江都外閣에 收藏되었던 圖書의 內容은 여기서 하나 하나 밝힐 수 없으나 正祖8年 檢書官 李德懋의 調査에 의하면 所藏件數 總1255冊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에 收藏되었던 記錄 및 書籍은 高宗3年(1866)의 丙寅洋擾時에 프랑스 軍隊에 의하여 一部 重要文獻은 掠奪되고 나머지는 同行宮과 함께 燒失되고 말았다.

四. 奎章閣藏書

正祖는 奎章閣의 設立과 同時에 東宮時에 가지고 있던 慶熙宮內的 貞顯堂의 藏書를 옮기는 한편 弘文館의 藏書와 江華行宮의 藏書인 明나라에서 보내온 書籍을 移藏하고 또 北京으로부터 圖書集成 5022冊을 購入하여 奎章閣의 藏書로 하였다.

圖書의 分類에는 四部分類法을 使用하였으며 圖書箋은 四部裝縹法에 따라 經部는 紅色, 史部는 靑色, 子部는 黃色, 集部는 白色 등으로 그 색깔을 달리하여 區別하였다. 그리고 書籍은 四庫全書館과 같이

經部는 甲庫, 史部는 乙庫, 子部는 丙庫, 集部는 丁庫에 각각 區別 配列하였다.

奎章閣藏書의 整理가 完了된 것은 正祖5年이다. 그리하여 徐浩修에 命하여 奎章閣總目錄을 編纂케 하였는바 閱古觀書目 六卷(그후 正寫하여 皆有高書目 四卷三冊으로 改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과 西序書目 二卷이 그것이다.

奎章閣의 圖書는 王은 勿論 閣臣과 文衙들도 自由로 貸出 閱覽할 수 있었으나 그 것은 반듯이 閣內에 限해서만 許容되고 外部持出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借出時에는 象牙로 만든 「請出牌」에 書名과 借出者의 姓名을 記入하여 이것을 摺文院에 備付하고 冊을 내다보게 하였으니 이와 같은 圖書貸出方式은 當時의 事情으로 보아 많이 發展된 制度라고 하겠다.

五. 高宗以後의 奎章閣의 動向

高宗元年 甲子(1864)에 이르러서 奎章閣의 御製御筆을 奉安하는 任務는 宗親府로 移管되고 從來의 奎章閣은 內閣으로서 景福宮內로 移轉하여 書籍과 日省錄內閣 日歷의 編纂에 관한 일만을 맡게 되었다.

1894年 甲午改革의 結果 政府의 機構가 改編되어 宮內府가 新設되고 따라서 奎章閣은 그 屬司로 되었다.

1895年(高宗2年) 奎章閣을 奎章院이라 改稱하고 그 長을 卿이라 했다. 職制는 記錄課와 奉閣課로 하고 直學士 1人, 校書 2人, 主事 4人을 두어 王室의 典籍 및 記錄을 保管하고 歷代王의 御製 御筆과 大君의 御直 王室의 譜牒을 奉安하는 일을 다시 맡게 하였다.

1905年(光武9年) 3月 宮內府官制를 改正하여 奎章院을 다시 奎章閣으로 改稱하

고 學士 1人, 直學士 1人, 直閣待制 1人, 主事 1人 等官을 두고 奎章閣의 事務를 管掌케 하였다. 學士는 奎章閣의 長으로서 勅任官 一等이고 그 以下官은 모다 奏任官이 었던 것이다.

隆熙元年 11月 宮內府의 官制가 다시 改正되면서 奎章閣의 機能은 더욱 擴大되어 奉常寺(祭祀와 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官衙) 宗簿寺, 弘文館 등이 廢止되고 그 機能이 모다 奎章閣에 移管됨에 奎章閣의 機構도 크게 擴張되었다.

1908年(隆熙2年) 9月 宮內府官制가 다시 改正되면서, 처음으로 奎章閣에 分課制가 實施되었다.

1. 典謨課
2. 圖書課
3. 記錄課
4. 文書課

典謨課에서는 璿源譜牒의 編纂 및 그 保管과 御製 御筆 御章 御眞의 圖寫 및 祭典의 參列에 관한 事項을 맡아 보았다.

圖書課에서는 圖書의 分類, 整理 그 保管과 出納, 그리고 圖書購入 및 繕寫와 圖書原板의 保管에 관한 事項을 맡아 보았다.

記錄課에서는 主로 王室關係의 公文書의 整理 및 그 保管과 日省錄, 上奏文, 儀軌, 冊文, 簇子の 保管에 관한 것과 특히 各 史庫에 관한 事項等 여기서는 主로 이들의 保管에 對한 것만을 맡았던 것이다.

文書課에서는 進講, 代撰과 諡號에 관한 일과 編纂 및 日省錄의 編纂, 史冊의 起草, 修正 等에 관한 事項을 맡았다.

이와 같이 奎章閣의 機構가 크게 擴張됨에 奎章閣은 司諫洞 宗親府의 廳舍로 옮겨갔다.

六. 奎章閣圖書의 變遷

奎章閣에 分課規定이 實施되면서 各各 事務分掌이 이루어지자 圖書課에서는 舊 奎章閣 圖書를 基本으로 帝室圖書館을 設立하여 一般에 公開할 計劃아래 昌慶宮內 慈慶殿터에 藏書閣을 建立하는 한편 弘文館集玉齋 北漢山行宮 春坊 等 王室 所屬의 諸藏書 十萬餘卷을 收集하여 이를 整理하고 隆熙4年 1月 부터 昌慶苑의 開放과 함께 一般에 供覽시킬 예정이었으나 韓日合併으로 因하여 그 計劃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1911年 6月 6日 付로 奎章閣 圖書課 및 記錄課 所管의 圖書 및 記錄은 全部 總督府 取調局에 의해 奪取되고 말았다. 그리고 史庫도 廢止되었다.

1912年 4月 取調局은 없어지고 奎章閣 圖書에 관한 事務는 官房參事官室로 移管되었고, 1922年 11月 同圖書는 學務局 學務課로 移管되었고 1930年 5月 奎章閣圖書는 現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前身인 當時의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 移管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는바 그 變遷過程을 圖示하던 아래와 같다. (14面圖解)

七. 結 語

上述한 바와 같이 奎章閣은 李朝後期の 王室圖書館으로, 中國의 唐, 宋, 明代의 圖書館이 그러했고 희랍, 로마時代의 圖書館이 그러했듯이 學術機關의 性格을 兼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李朝後期の 學術文化의 中心은 이 奎章閣이 었던 것이다.

그리고 奎章閣圖書는 後揭한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러 過程을 거쳐 形成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1930年 5월에 總督府

奎章閣 圖書形式의 時代別來歷

1776年 奎章閣藏書構成

奉 漢 堂	移 安 閣	皆 有 窩	閣 古 觀	西 庫	江 華 外 閣
↓	↓	↓		↓	↓
6,463	未 詳	19,652		20,663	約 5,000

1907年 弘 文 館	集 玉 齋	春 坊	北 漢 山 行 宮
↓	↓	↓	↓
4,254	39,817	20,116	7,936

韓末 奎章閣 圖書課 所收藏書

總 計	5,493部	103,680册
-----	--------	----------

1911年 總督府 取調局 引繼		
圖書課分	535部	100,187册
記錄課分		11,730册
計		111,917册

1912年 參事官 分室

朝鮮本	12,887部	69,705册	太 白 山	1,216部	5,777册
中國本	5,803部	78,382册	五 台 山	599部	4,136册
計	18,690部	148,087册	江 華		約 5,000册

1922年 京城帝大 附屬圖書館

一次移管	2,074部	9,553册	640部	12794册은
二次移管	1,086部	15,970册		東洋書 轉管轉換

三次移管	13,471部	128,184部
------	---------	----------

殘餘 : 3,520部 12,729册

現在數

16,991部 140,913册 (但 이 數中에는 未詳分 141部 312册이 包含됨)

學務課分室로 부터 京城帝國大學에 移管 되었던 것이 現在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保管되어 오고 있는바 그 總冊數는 約 14萬餘册에 達한다.

이는 그數에 있어서도 尨大할 뿐만 아니라 李朝以來 우리나라의 國家記錄과 東

洋古典을 叢集한 것으로서 韓國 및 東洋 研究에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貴重한 圖書는 아직까지 完全한 整理를 보지 못하고 있다. 日帝時代에도 그 整理事業이 試圖된

바 있지만 完結하지 못하여 失敗하고 말았으며, 解放後 現今에 이르기까지 이에 對한 整理對策이 講究됨이 없이 死藏되다시피 되어왔다.

우리는 先祖가 물려준 이 貴重한 圖書文化財를 잘 保存하며 速히 이를 整理하여서 잘 活用하여 새로운 우리의 文化發展에 寄與함으로써 그 歷史的使命을 살려야 할 줄로 안다.

그러기 위하여는 于先 正確한 解題目錄을 만들어 學界에 내 놓으므로서 學者들이 이를 빠짐없이 利用할 수 있는 手段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期待는 當局의 많은 理解와 그리고 學界와 圖書館人이 合力에 의해서 만이 얻어질 수 있는 일이다.

끝으로 한가지 附言할 것은 拙者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는 研究의 不足과 內容이 疏漏하였음을 是認하며 特히 印刷가 고루지 못하고 誤字가 많았음을 謝過하는 바이다. 앞으로 좀더 研究檢討하여 우리나라 圖書館史의 研究에 寄與코져 努力하겠다.

入 荷 案 內

大英百科事典 ENCYCLOPAEDIA BRITANNICA 24Vols.

1962年版(全訂版) \$ 398.00

世界地圖 BRITANNICA WORLD ATLAS

1962年版 \$ 29.00

上記書籍의 最新全訂版이 처음으로 入荷되어 廉價로 販賣中이오니 下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韓國總代理店

株式會社 國際書林

私書函 光化門局 341號

電話 3-1878